





『태풍 속을 걸어온 열매들이
등불처럼 빛나는 가을
어려움이 많은 마음에도
귀한 결실이 익어가고 있겠지』
- 박노해

지난 시간 걱정은 가을볕에 말리고,
간절한 오늘의 기도가 끝나면
등불처럼 빛나는 내일이 올거예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돕고
그렇게 나를 지켜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달려온 선생님들은
이미 우리의 자랑입니다.
잘 할 수 있을거예요!
끝까지 힘내세요!

2026. 11. 05. 하수혜 드림



거름이, 오름이, 해냄이로 거듭날 우리 선생님들!! 합격을 응원합니다!



준비물들은 잘 챙기셨나요?

① 바늘로 표시된 **아날로그 손목시계**로 준비해 주세요.

②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출력**해서 준비해주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수험표도 여러 장 더** 챙겨주세요(수험표를 가져가지 않으셨더라도, 시험장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당황하시지 마시고 현장지원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도 꼭 챙겨주세요.

④ 렌즈를 착용하시는 경우 시험 당일의 눈 상태에 대비하여 안경도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⑤ **패드제품, 애플와치/갤럭시와치(전자시계류), 블루투스 이어폰,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는 모두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시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다가 깜빡할 경우, 퇴실 조치될 수 있으므로 지퍼백이나 큰 파우치에 모아서 넣어두시면 이런 실수를 예방할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⑥ **자, 필통, 귀마개, 방석, 무릎담요, 모자, 장갑** 사용 및 착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교육청 별 주의사항 참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⑦ 필기구는 **검정색 볼펜, 샤프, 지우개,** 색깔 펜(논술이나 문제지에 자신이 알아볼 수 있도록 체크하기 위해 색깔 펜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사실 감독관에게 색깔 펜 사용 여부를 한 번 더 물어보시고 문제지에 사용하시면 좀 더 안전하겠죠? 색깔 펜은 답안지에 절대 사용해선 안되므로 이마저 불안하다면 아예 꺼내놓지 않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⑧ 답안지 문항 번호를 꼼꼼하게 보신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 거꾸로 작성하는 사례들이 꼭 매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소문항 번호 작성 시, 소문항 번호를 반복하여 작성하거나 빠뜨리고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문항 번호를 체크하는 것 잊지마세요.

⑨ 전략노트는 모두 들고 가셔서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은 그때그때 바로 꺼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안에서 요구하는 질문에 유의하여 답안을 서술합니다.

1. **「찾아쓰시오」**라고 묻는 문항

- 지문에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서술하시면 됩니다.
- **유의)** 사례 그대로 가져오되 부연 설명이 요구되는 문항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지문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베이스로 하고,
  필요에 따라 설명을 덧붙여야겠습니다.

2.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서 고치시오」**라고 묻는 문항

- ~가(이/는/은) 잘못되었다. □□로 고쳐야 한다.
- **유의)** 화살표를 사용하시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서술하고, 뒤에 바르게 고친 부분까지 서술하여 연결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3.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묻는 문항

- 적절하지 않은 내용인 ~ 을 쓰고, ~와 같이 제시한 것은 「□□(이유에 해당하는 내용)」하기(이기) 때문이다.

4. **「00이론에 근거하여 (지문 속)**의 사례에서 나타난 특징을 쓰시오.」**라고 묻는 문항

- "**는 □□□□(사례 중 「00이론」에 부합하는 특징을 서술) 특징을 보이고 있다."와 같이 서술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의 명칭, ~의 원리, ~의 (발달)단계의 명칭, ㉠은(는,이/가) ~중 무엇에 해당하는 지를 쓰시오.」**라고 묻는 문항

-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답을 먼저 써 둡니다. 그 후, 앞 뒤의 단계나 나머지 원리를 작성해 보시면서 혹시 모를 실수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명칭, 원리, 무엇에 해당하는 지를 쓰라고 하는 경우는 단계명이나, 원리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시면 됩니다.
- **유의) 「~의 개념을 서술하시오」**라고 묻는 경우, 명칭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개념을 물을 때는 그에 대한 **정의를 담은 설명**을 하셔야 하는 문제이므로 명칭만 쓰시면 안된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죠^^
- 예) 유아기 미술표현의 명칭을 묻는 문제일 경우, 명칭을 쓰시면 되지만 특성을 묻는다면〔공간 개념의 한 방법으로 기저선과 하늘선을 사용한다. / 가까이 있는 사물은 밑에, 멀리 있는 사물은 위에 그리는 적립원근 표현법을 사용한다. / 사물과 사물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면 전체의 통일성이 없고 열거식으로 표현한다.〕로 서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묻는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고 묻는 것에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경우, **내용범주**를 쓰라는 문제인지 **내용**을 쓰라는 문제인지 잘 구별해야합니다.
- 예) 신체운동·건강에서 **기본동작유형**을 묻는지 **동작의 명칭**을 묻는 문제인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 예) 예술경험 영역에서 **미술의 요소**를 묻는지 **미술의 원리**를 묻는지 구별하셔야 합니다.

7. 답안지 틀 바깥으로 서술한 내용은 채점이 되지 않으며, 수정을 원할 시 일반적인 글쓰기의 교정부호를 사용합니다.
   답안 작성 시 문항에 주어진 답안지가 부족하다면 그 틀 안에서 줄을 추가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를 대신 삼아 시험지를 접어 줄긋기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8. 공부한 내용에서 100% 출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서술하고 오셔야 합니다.
   도저히 답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항의 번호를 먼저 표시해 두고
   답안은 공란으로 남겨두세요. 이후 자신 있는 문제부터 빠르게 작성한 다음,
   다시 공란으로 남겨둔 문항으로 돌아와 답안을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공란으로 남겨둘 여백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분량과 문장 수를 가늠하여
   적절하게 확보해 두세요.
   모르는 문제라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과 관련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분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끝까지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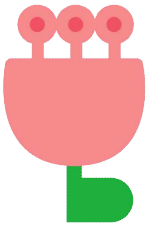
✿당부의 글 더하기✿

시험장에서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평소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도
실전에서는 문제를 해독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에게 강점이 되는 영역의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친숙하게 공부했던 영역이나 전체 문제를 빠르게 훑어보았을 때
비교적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신 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내가 이 시험을 충분히 잘 치러낼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시험 현장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1번 문제를 풀겠다고 덤비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1번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불안이 더욱 커지고,
그로 인해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1번을 빠르게 건너뛰고 과감하게 2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1번 문제가 아예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 우리 강사님도 시험지를 받자마자 1번 문제를 풀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긴장된 상황에서 누가 더 빠르게 평정심을 되찾느냐입니다.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1분일 수도 있고, 10분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30분이나 1교시 전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시험장에서는 나만 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긴장과 불안을 안고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나만 유독 불안하고, 나만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긴장하는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며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막상 가져갔던 자료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장감과 시험장의 낯선 분위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니 시험 전날에는 기출강의 때 제공해 드린 마인드맵을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공부했던 내용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점검하고,
혹시 바로 떠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포스트잇으로 전략노트에 별도 표시를 해두세요.



여러 차례 시험을 치르다 보면 평소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내용도
유독 시험 당일에는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전략노트는 반드시 모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분명 가물가물하게 기억나는 내용이 생깁니다.
그럴 때 다시 돌아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전략노트입니다.
그러니 일부만 가져가거나 마지막까지 분량을 더 줄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험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시험 직전에 지나치게 간략하게 줄인 내용만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해 온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혹시라도 빠뜨린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괴롭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전략노트를 놓지 마세요.
그것이 합격자들이 한결같이 전해주었던 소중한 합격 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하나라도 더 눈에 익히고 머릿속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험이라는 그 녀석을 상대하러 가보실까요!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와도,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시험에 기죽지 말아요, 우리! 결국 그 승부의 승자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미 행운의 여신은 하쌤과 함께한 여러분의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흘린 땀과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도 참 특별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들을 지나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 하나하나,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모두에게 참 잘 견뎌냈고 참 잘 해냈던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시험장에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